

“ 생명보다 귀한 인자 ” (Your steadfast love is better than life)

■ 이종윤 원로목사

자식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수다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광야를 성소로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표류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황막하기가 광야와 같고, 메마르기가 사막과 같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듯 더욱 간절하기만 하다. 그곳은 성소가 없는 시온산의 성소에서 먼 거리에 있는 광야였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일 성소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뵈오려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입술로 주를 송축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그리워하고,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위협과 곤고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어느 과학도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꼬박 하루가 걸린 것을 보고 힘든 과정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다른 번데기의 구멍을 가위로 넓혀서 나방이 쉽게 구멍을 벗어나게 했다. 영롱한 날개를 가지고 팔랑거리며 날아갔지만 쉽게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빛깔도 곱지 않았다. 간신히 나오는가 했더니 얼마 못가 죽어버렸다. 다윗에게 고난의 날들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수많은 시편은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고와 고통, 희생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곤고한 중에 감사를 한다. 그의 주제는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사랑)하심이 낫슴(귀함)하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 사랑에 미쳐본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체면, 소득, 명예, 건강도 사랑 위해 포기한다. 민족적 · 국가적 고난과 개인적 아픔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

황무지를 제단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봉헌하고, 그 제물 중 자기들의 몫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직적인 면과, 가족 간의 교통하는 수평적인 면을 확인한다. 다윗은 전날 그가 맛보았던 화목제를 회상했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광야에서는 제단도 제사상도 없기 때문에 옛날의 경험을 맛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침상에 눕게 되면, 주님 생각에 밤 가는 줄 몰랐고, 별처럼 떠오르는 지난날의 은총을 연상하다가 과거의 보호는 미래 구원의 보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를 억제할 수 없어, 주님의 품속에 와락 파고들면, 주께서 그의 오른팔로 다윗을 감싸 안아 주시므로서 다윗은 제단 아래서 기쁨지고 맛있는 화목제물을 배불리 먹듯 한 충족감을 연일 경험하므로 황량한 황무지를 제단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하나님과 교통 중에 있는 자는 항상 영적인 희열의 충족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전수(全數)요, 최상의 소유자시며, 최고의 가치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세상에서 더 찾을 것이 없게 된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by God, with God, in God) 만족케 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자.

내일을 만들어 사는 오늘
오늘과 상관없는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좌우되는 것은 만민에게 통용되는 천리(天理)이다. 다윗은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신실하게 살기를 힘쓴다. 그의 대적들이 영원한 침묵 속에 소멸되어 버릴 내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승리를 드높이 자랑하는 내일을 갖기 위해서이다. 황량한 광야를 성소로, 삭막한 불모지를 제단으로 만들어 산 사람이다. 그리고 곤고한 오늘을 탓만 하기보다, 오늘의 곤고 중에서도 내일을 만들며 산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삶 즉 응답 이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Youtube 서울교회 계정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20분, 3부-오후2시에, 찬양예배-오후 5시에 예배 영상이 Youtube를 통해 송출됩니다

아울러 현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상황으로 인하여 매년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되던 향촌직 은퇴식과 각종 시상식 및 내년도 예, 결산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추후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송구영신예배도 부득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함을 안내드립니다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01227_sermon.jpg

교회가 회복된 가운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올 한해도 교회 회복을 위한 영적 고난과 인내의 시기에 눈물겨운 헌신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르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뵤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성,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욱·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 큰 빛 ”

■ 이사야 9:1-4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상이 하늘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이 하는 일들은 빛을 모르고 어둠에 속한 것들뿐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신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불러들인 참상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큰 빛이 비취진 것입니다. 이 빛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1. 빛은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본래 흑암으로 뿔뿔하게 둘러싼 곳은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처럼 큰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 2절 말씀은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한 자들에게 한 빛이 비취었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나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큰 고통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빛은 장차 올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며 사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북 이스라엘에게 먼저 메시아의 빛을 보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마 4:13-16)
이것은 흑암의 땅에 거하는 인생들, 사람의 그늘진 곳에 사는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원수인 인생들의 구원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위roy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2. 멸시 당하거나 배척당하던 자들의 희망이신 메시아

북 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은 주전 721년 앗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 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고관대작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천대받은 자들, 멸시 받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죄인들, 갇힌 자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찬란히 비추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철물발이, 얇은땀이 눈먼 소경, 중풍병 자들, 귀신들린 자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다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첫처럼 조난단 에드워드는 인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우리 민족에게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는 만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 토마스 선교사가 직접 조선 땅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시도하다가 대동강 변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4년 드디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맺는 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안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9:3-4). 복음의 큰 빛이 비추이는 곳에서만 창성한 복을 얻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무겁게 맨 멍에가 풀어집니다. 어깨의 채찍들과 안제자의 막대기가 다 산산 조각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심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 이 기쁨, 이 복락, 이 민족함을 세상에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빛을 맘껏 비추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에 끼여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조정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딤후 4:7-8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1(시 97편)
* 송 영 Doxology	1(1)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10(245)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91:1-7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 찬 송 Hymn	419(478)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나는 여호와와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50:1-2
찬 송	301(460)
기 도	김영희 집사
성 경	눅 12:42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자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설 교 자
* 찬 송	313(352)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I 부	서희숙 권사
성 경	수 11: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282명	426명	1,708명	431명	1,716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2/2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20일	헌 금	40,281,840	
	특별예배비		20,290
	교회학교운영비		3,537,000
	선 교 비		400,000
	행 사 비		908,050
	구 제 비		300,000
	비전2020		9,200,000
	출 판 비		250,000
	노회상회비		15,000,000
	연합사업비		500,000
	인 건 비		4,289,340
	복리후생비		5,204,350
	통 신 비		1,177,410
	수도광열비		257,510
	차량유지비		1,800,360
	소모품비		49,650
	환경유지비		306,100
	수선유지비		13,287,620
	식당운영비		612,310
	합 계	40,281,840	57,099,99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